

해방 초기 북한의 화교학교 재건과 중국공산당 및 북한정부의 역할

송우창*

-
- | | |
|-----------------------------------|---------------------------|
| I. 서론 | IV. 북한 화교학교 건설의 본격화 |
| II. 해방 직후 북한 화교학교의 혼란 | V. 중공 간부의 귀국과 화교학교 관리의 변화 |
| III. 중공중앙동북국 주조판사처의 성립과 북한 화교의 관리 | VI. 결론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방 초기 북한 화교학교의 재건사업 과정에서 중국공산당과 북한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해방 직후 북한의 화교학교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져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금난이었다. 1940년대 초반, 조선 주재 왕징웨이 정권의 중국 영사관과 각지의 중화상회가 주도하여 화교학교를 증설했다. 그러나 1945년 8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왕징웨이정권의 영사관원을 반소분자로 분류하여 이듬해 3월 시베리아로 추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화교 인사들이 체포되면서 많은 화교 상인들이 서울로 피난을 떠나, 각지 화교학교가 연이어 폐교를 했다. 1946년 8월 평양에 설립된 중국공산당 동북국(東北局)의 주 북한판사처는 북한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북한 화교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 설립에 나섰다. 그 결과 중공 간부와 북한

* 宋伍強.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廣東外語外貿大學) 교수.
e-mail: songwuqiang@hotmail.com.

노동당 간부로 이루어진 북조선화교연합총회가 발족되었고, 각 지방에는 화교연합회가 개설되었다. 화교연합회의 주요한 업무는 화교들을 중공군 지원활동과 북한의 사회건설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중공군 지원사업에 집중되었다. 화교연합회는 첫 사업의 하나로 화교 학교를 재건하는 사업에 나섰으며, 화교학교는 연합회의 정책에 따라 친 중국공산당적인 사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화교연합회 주도의 화교학교 재건과 교육은 1948년 9월부터 정규교육 강화에 힘을 쏟았다. 이 시기 화교연합회의 임무는 화교들을 북한의 사회건설에 참여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북한측의 주도하에 각지에서 ‘북중학생연합회’가 개최되었다. 1948년 국공내전이 중공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북한에 파견됐던 중공 간부들이 속속 귀국하자 화교학교는 자금난과 교원 부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화교연합회는 화교학교를 북한 정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북한정부는 1949년 4월부터 화교학교의 관리를 화교연합회로부터 이양받았다. 북한 정부는 1949년 말까지 화교학교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학교 내부의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1949년 9월에 조직된 ‘학부형회’와 ‘평의회’, ‘소년단’과 같은 조직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다. 교육방침은 화교 학생들을 북한의 사회건설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주제어 : 북한, 북한정부, 중국공산당, 중국국민당, 북한화교, 화교정책, 화교소학교, 화교중학교, 화교연합회, 북중관계

■ Abstract

Reconstructing North Korea's Chinese Schools: China and North Korea's Rol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Liberation

Song Wuqiang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ina)

This paper is on the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s Chinese schools in the early stages of liberation and focuses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roles. Shortly after liberation, Chinese schools in North Korea sat abeyant due to lack of funds. In the early 1940s, with the support of the Wang Jing-wei regime and the local Chinese Chamber of Commerce, additional Chinese schools were esta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nsulate. Conflicts over juridical legitimacies between the Soviet army and the Consulate of the Wang regime led to consuls and several overseas Chinese arrests, resulting in several Chinese merchants fleeing to Seoul and Chinese school closure between August 1945 and early 1946. In August 1946, a CCP office of the Northeast Bureau was established in Pyongyang. This representative agency accepted the request from North Korea to create an organization to manage North

Korea's Chinese. The Overseas Chinese Federation (OCF), established in Pyongyang, aimed to promote Chinese participation in support activities for the Chinese army and social construction in North Korea. This research details how the OCF fostered Chinese involvement in North Korea. The efforts included the 1948 Chinese civil war target of ameliorating the shortage of teachers and financial difficulties of Chinese schools with the transfer of Chinese schools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research further examines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student friendship activities and the system reforms within the Chinese schools. The findings also provide evidence that education policy of North Korean government encouraged local Chinese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North Korea.

Key-words : North Korea, China, Chinese Communist Party (CCP),
Overseas Chinese in North Korea, Overseas Chinese Policy,
Overseas Chinese Federation of North Korea

I. 서론

해방 초기 북한지역에는 4만여 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당시 북한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나 중국 공산당의 화교정책, 또는 해방 후부터 국교 수립 이전까지의 북·중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연구영역이다¹⁾.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나 동향을 보면 북한 화교를 활용한 접근법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해방 초기 북한지역에는 패전과 함께 귀환을 서두르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외국인의 대부분이 화교였지만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북한 정부의 화교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간의 중국의 화교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기 때문에(莊國土. 1992, 1-11), 다수의 연구가 동남아 화교의 이중 국적 문제에 중점을 두어 왔다(周南京. 2005). 따라서 제2차 국공내전 시기 중국 공산당의 화교정책 관련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현대 북·중 관계사 관련 연구는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상당한 연구축적이 이뤄져 있지만, 활용한 자료의 대부분을 소련외교부문서 등의 정부 외교문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瀋誌華. 2018, 120-122), 냉전 구조나 국제관계론의 틀 속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강했다.

한편, 해방 후 북한화교에 관한 연구는 중국 귀국 북한화교의 구술

1) 본고는 일제식민지 말기로부터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1948년 9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년 10월 1일) 직후의 시기를 포함한다. 지역, 기관명, 국적을 가리키는 표현은 편의상 시간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 공간적으로는 38선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조선’, ‘조선화교’, ‘조선인’은 해방 전 한반도 거주자를 의미하며, ‘북한’, ‘남한’, ‘북한화교’, ‘북한인’은 해방 후 38선을 경계로 한 표현이다. 또한 전후 중국은 ‘중국공산당’(약칭 ‘중공’)과 ‘중국국민당’(약칭 ‘국민당’)의 명칭을 사용하며, ‘중국인학교’는 ‘화교학교’로 통일한다. 다만, 고유명사의 경우는 그대로 사용했다.

자료의 검토에서 시작됐다. 북한화교는 해방초기부터 80년대에 걸쳐 중국으로 상당수 귀국하게 되는데 이들의 구술채록 작업이 진행돼(吉林省華僑歷史學會 編.1986-1990),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시작됐다(余以平. 1984). 2000년대에 들어 중국에서 당안(檔案)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를 활용한 해방 후 북한화교의 귀국 실태(曲曉範 외. 2000)나 국적 문제(줄고. 2010) 관련 연구성과가 나왔다. 하지만, 해방 초기 북한화교 관련 연구는 개론 수준에 그쳐(楊昭奎 외. 1991, 309-311, 321-327), 당시 화교의 학교재건과 중공군 지원에 대해 위의 귀국화교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였다. 최근 찰스 크라우스(Charles Kraus. 2014)는 미국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북한화교연합회 문서와 해방 초기 북한에 파견된 중공 간부의 구술자료를 활용, 북한 화교연합회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화교의 중공군 지원, 신문 매체 및 번역 작업을 통한 북·중교류, 화교학교의 재건 등을 논했다. 그런 점에서 크라우스의 연구는 해방 초기 북한화교를 대상으로 북·중 관계를 논의한 첫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은 해방 초기 북한화교 사회의 변화 및 북한정부의 대 화교정책에 대한 논의가 매우 빈약하다.

본 연구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시기 북한의 화교학교 재건과정에 초점을 맞춰, 중공과 북한정부 및 북한화교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려고 한다. 먼저 북한지역의 화교학교의 상황에 대해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눠 정리하고, 북한에 파견된 중공 간부들이 북한화교의 관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논의한다. 그다음으로 화교연합회가 화교학교의 재건에 어떻게 관여하고 전개하는지 살펴본 후, 북한정부가 화교학교 재건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북한화교연합회의 문서와 중공 간부의 구술자료 이외에 북한화교

연합회의 기관지인 『民主華僑』(1948.11-1950.6)와 북한 귀국화교의 구술자료 그리고 한국, 일본에서 출판된 각종 자료 등이다.

II. 해방 직후 북한 화교학교의 혼란

1. 해방직전 조선 북부지역 화교학교의 실태

근대 조선의 화교학교는 남부지역인 인천에 1902년, 1910년 경성(京城, 오늘의 서울)에 각각 설립되었다. 북부지역의 화교학교는 신의주에 1915년, 진남포에 1919년, 원산에 1923년, 청진에 1930년 각 도시의 화교인구 증가와 함께 설립되었다(楊昭全 외. 1991, 209-210, 287-289). 1930년대에 들어 만주사변, 중일전쟁이 연이어 발발하고, 조선화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화교학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李正熙. 2010, 19-40).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조선 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중국대륙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조선으로 이주했을 뿐 아니라 조선 거주 화교의 가족이 이주해옴으로써 학령기의 화교 자녀의 인구가 증가했다. 조선화교는 중일전쟁 시기 베이핑(北平, 베이징)의 중화민국 임시정부 및 왕징웨이(汪精衛) 난징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의 관할 하에 놓여있었다. 왕징웨이 난징국민정부는 화교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 지역에 화교학교를 설립, 화교학교의 수가 급증했다. 1944년 현재 북부지역에는 평안북도에 10개교(신의주, 신의주화공, 신의주화농, 운산북진, 용암포, 강계, 칠평, 대유동, 후창, 정주), 평안남도에 4개교(진남포, 평양, 동평양, 선교), 황해도에 3개교(해주, 사리원, 검이포), 함경북도에 5개교(청진, 웅기, 회령, 나진, 성진), 함경남도 2개교(원산, 함흥), 총 24개교에 약 1,600명의 화교 자녀가 재학

하고 있었다(이정희. 2007, 111-117; 『民主華僑』. 1949.8.15, 3면). 이러한 화교학교는 해방 직후 북한지역 화교학교의 실질적 토대가 되었는데 1940년대 초반 이들 화교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을까?

1937년 12월 14일 베이핑에 친일적인 중화민국 임시정부(왕커민(王克敏) 정권)가 설립되자 조선화교의 관할은 장제스(蔣介石) 남징국민정부에서 베이핑의 임시정부로 이관되었다(安井三吉. 2005, 250-251). 그 후 1940년 3월 30일 왕징웨이의 중화민국 난징국민정부가 세워지자, 조선화교의 관할은 다시 왕징웨이 정권으로 넘어갔다(楊韻平. 2007). 왕징웨이 정권은 해외 화교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화교교육을 적극 추진했다. 왕징웨이 정권은 화교학교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한편, 교무 위원회와 외교부가 협력해 화교학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조선의 화교학교는 왕징웨이 정권의 주조선영사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되었다. 또한, 각지의 화교학교는 현지의 중화상회(中華商會)의 임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교동회(校董會)에 의해 운영되었다(李盈慧. 1997, 113, 123, 553). 화교학교의 수입원은 왕징웨이 정권의 보조금, 중화상회를 비롯한 화교단체의 기부금, 학비의 세 가지였는데 앞의 두 가지가 학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교인구가 가장 많았던 평안북도의 경우를 본다면, 1943년 11월 신의주 관내 7개교(신의주 시내 3개교, 용암포, 운산북진, 강계, 칠평)의 연간수입은 총 5만 2,443원이었다. 이 총액 가운데 정부 보조금은 1만 6,485원, 기부금 2만 1,635.4원으로 전제의 72.7%를 차지했다(菊池一隆. 2005, 5).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표 1> 평안남도과 황해도 지역 화교학교의 재정상황(1944년 2월) (명, 원)

학교명	교원수	학생수	수입				수입 총액	지출 총액
			정부 보조	학비	상회 보조	기타		
진남포 화교학교	2	120	1,992	1,200	1,200	-	4,392	4,400
평양 화교학교	3	203	2,490	2,000	1,200	10,000	15,690	6,300
동평양 화교학교	2	125	없음	1,200	1,440	-	2,640	6,200
검이포 화교학교	1	46	없음	400	200	400	1,000	1,000
사리원 화교학교	1	55	1,200	1,747	70	-	3,657	3,300
해주 화교학교	2	84	1,416	1,800	1,794	-	5,010	5,010
계	11	633	7,098	8,347	6,544	10,400	32,389	26,210

출처: 汪政權駐鎮南浦辦事處. 1944.

<표1>은 왕징웨이 정권 주진남포(해방후 남포)판사처가 1944년 2월 22일 경성총영사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1944년 당시 평안남도과 황해도의 화교학교 6개교의 정부보조금, 학비, 상회보조금의 총액은 2만1,989엔이었다. 이 가운데 검이포 화교학교를 제외한 5개교의 학비 수입 비율은 27.3%-47.8%의 수준이었다. 왕정권의 보조금과 현지 화교단체의 기부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방 직전 조선의 화교학교는 영사관의 지도 아래, 교동회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1945년 8월 소련군의 북한 진주로 변화한다.

2. 왕징웨이 정권 영사관의 폐쇄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왕징웨이 정권도 종말을 고하면서 조선에 주재했던 영사관원은 장제스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들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해방 초기 북한지역에는 신의주영사관(영사 저우관난(周冠南), 수습영사 루위쥬(盧禹玖), 취여우청(曲有成)), 원산부영사관(부영사 왕용진(王永晉), 수습영사 우예싱(吳業興), 주사 장원잉(張文英), 청중여우(程忠猷)), 진남포판사처(부영사급 수습영사 양샤오첸(楊紹權), 주사 쑤궈쑤(孫國勳))이 있었으며, 각 영사관에는 상기의 영사관원이 근무하고 있었다(楊韻平. 2007, 73-74). 1945년 8월 21일 소련군이 원산에 상륙하자, 원산 부영사 왕용진은 8월 25일 현지 주둔 소련군 사령부를 찾아가 영사관과 현지 화교의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소련군측은 “현재 북한에 있는 영사관은 전 난징(왕 정권: 인용자) 정부의 파견에 의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中華民國外交部亞東司. 1945.10.26).

1945년 12월 28일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전제로 하는 ‘모스크바 의정서’가 채택되자 조선 민주당(1945년 11월 3일 발족)의 당수 조만식은 이에 완강히 반대했다. 이로 인해 그는 1946년 1월 5일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당하고, 반소련 성향의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호텔에 연금됐다. 소련 주둔군은 그들의 노선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체포하고,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와다하루끼. 2014, 57-59). 반소 반공 세력에 대한 체포는 신의주사건²⁾ 전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김학준. 1996, 96-97).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평양 일본인회(日本人會)는 1945년 11월 18일 조만식의 비서 송씨의 요구에 따라 북한 지폐 200만원과 일본 지폐 5만원의 정치헌금을 했다. 같은 해 11월 하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일본인회의 책임자들이 선교리 보안서에 감금되고, 송 비서 역시 12월 20일경 구속

2) 신의주사건이란 신의주 지구 공산당이 1945년 11월 반공 시위에 참가한 신의주 학생들에게 발표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을 말한다.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森田芳夫. 1964, 487-488). 1945년 12월 북한 각지에서 반소반공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들이 평양법원으로 송치됐는데, 전(前) 왕징웨이 정권의 영사관원도 이 사건에 휘말렸다(왕용진. 2017, 135-137). 이들 영사관원은 소련군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식과 관계를 강화하려 했다. 평양서 가장 가까운 진남포판사처의 양샤오첸 부영사는 조만식 등이 설립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1945년 8월 17일 발족)와 연락을 취했으며, 조선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주당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楊紹權. 1962, 19).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왕징웨이 정권 하의 영사관원은 반소반공 세력으로 분류된 것이다.

더욱이 소련군은 1945년 12월 중순 북한 소재 전 왕징웨이 정권의 영사관을 모두 폐쇄했다. 이와 동시에 신의주영사관의 저우관난 영사, 취여우청 수습영사, 직원 추밍푸(初銘璞), 통역 무쉬건(穆緒根), 통역 정춘청(鄭春成), 원산부영사관의 왕용진 부영사, 장원잉 주사, 청중여우 주사, 직원 우란루(吳蘭如), 진남포판사처의 양샤오첸 수습영사 등이 전원 평양법원으로 송치되었다. 평양법원은 소련군 장교가 영사관원들에게 마오쩌둥(毛澤東)을 아는지, 공산당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심문했다. 이들 영사관원들은 1946년 3월 훈춘(琿春)을 경유하여 소련으로 호송되었고(왕용진. 2017, 133-141), 1947년에는 하바로프스크 제 45수용소로 이관됐다.³⁾

3) 愛新覺羅毓嶠(2005, 230-233). 그들은 1950년 중국 국내로 인도되어 푸순전법관리처(撫順戰犯管理處)에서 복역했다. 이 가운데 저우관난, 왕용진, 장원잉, 청중여우, 추밍푸, 우란루, 정춘청, 무쉬건의 8명은 1957년 1월 사면을 받아 석방되었다(撫順市社會科學院 編. 2001, 379).

3. 중화상회 해산과 화교 유력인사들의 월남

근대 조선의 북한지역 소재 중화상회는 해방과 함께 형식상으로는 해산됐지만, ‘상회’와 ‘농회’가 주축이 되어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中國駐朝鮮大使館. 1958).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 활동이 확인된 조직은 평양화교회(회장 위당하이(于定海)), 원산화교상회(회장 텐빙환(田炳煥)), 원산화교농회(회장 청즈즈(成之智)), 청진화교회(회장 류송원(劉崇文)), 함흥화교회(회장 왕쉐홍(王學宏)), 해주 화교상회(회장 쑨허링(孫鶴齡)) 등이다(왕용진. 2017, 107, 126; 王恩美. 2008, 153).

해방 초기 북한 화교 상인들의 손실은 매우 컸다.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은 먼저 은행과 우체국을 장악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⁴⁾ 그 결과 화교의 은행 예금도 동결되고 말았다. 몇몇 화교들이 예금 인출을 위해 38선을 넘어 서울의 조선은행까지 갔지만 헛수고였다(왕용진. 2017, 104-105). 한편, 소련군이 일부 화교 상인들을 체포했다. 화교에 대한 체포는 상기의 전 왕징웨이 정권 영사관원의 연행과 연동되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평양 화교상회 회장인 위당하이가 체포된 것도 1946년 초반이었다(王恩美. 2008, 153). 1946년 10월 이후 북한에서는 화교연합회(이 조직에 대해서는 후술)의 주도하에 화교 농민에 대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는데, 토지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화교 지주의 채소밭 토지를 몰수하는 등 유산계급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鄭奕鈞. 2005, 215).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화교 상인들이 서울을 향해 월남했다. 해주시의 경우 중화요리점 화성원(華盛園), 홍파원(鴻發園), 평라이거(蓬萊閣) 등의 경영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했다. 해주화교소학교 교장을 지낸 쑨허링

4) 예를 들면, 해방 직후 소련군이 평양에 입성한 다음날인 1945년 8월 25일 평양 시내 모든 은행과 우체국은 영업 정지를 당했다(森田芳夫. 1964, 183).

(푸성창(福盛長)의 경영자)도 1946년 봄 한국으로 이주했다(慕德政. 2003, 308). 1948년 5월 서울 소재 중화민국총영사관의 류위완(劉馭萬) 총영사는 해방직후부터 1948년 5월까지 약 4천명의 북한화교가 월남했다고 밝혔다(『新聞報』, 1948.5.19, 2면). 이로 인해 북한에서 화교학교를 운영하던 주체인 중화상회, 농회의 조직 약화가 초래되었다. 하지만 북한지역 거주 화교인구는 1947년 4만 863명⁵⁾, 1951년에도 여전히 3만 8,000여명을 유지하고 있었다.⁶⁾ 화교학교의 ‘공동회’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1949년 말 북한 소재 화교소학교는 87개교, 화교중학교는 2개교, 학생수는 총 6,883명에 달했다(中國駐朝鮮大使館. 1958). 이러한 사실은 해방초기 북한의 화교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아래에서는 세 시기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I. 중공중앙동북국 주조판사처의 성립과 북한 화교의 관리

1. 중공중앙동북국 북조선판사처(駐北朝鮮辦事處)의 성립

일본 패전 후 생긴 정치적 공백 하에서, 중국 동베이(東北)지역에선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간의 국공내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해방 초기 동베이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소련군은 중공군(中共軍)의 세력확대를 용인하는 한편, 국민당군(國民黨軍)의 동베이 진주를 지연하는 방침을 택했다. 그래서 국민당군의 동베이 진출은 1945년 12월이

5) 이시기 북한화교의 인구 변화를 보면, 평안북도 화교가 1944년 3만3,021명에서 1947년 2만93명으로,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의 화교 인구는 총 1만9,095명에서 9,000명 정도로 격감 되었다(中華民國外交部東司. 1945;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a, 436).

6) 華僑問題研究会 編. 1956, 182-183. 해방 초기 국공내전을 피해 다수의 중국인이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화교가 되었으나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되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이듬해 2월 시점에서 25만명의 국민당군이 등베이에 진주했다(汪朝光. 2000, 450). 이런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1945년 11월 20일 중공동북국⁷⁾에 도시를 내주고 근거지를 동만, 북만과 서만으로 분산 이동하도록 지시했다(劉少奇. 1985, 537-538). 1946년 5월 3일 소련군이 등베이 지역에서 완전철수하자, 국·공 양군의 충돌이 격화됐다. 같은 달 18일 국민당군은 공산당군이 차지했던 쓰핑(四平) 방위선을 돌파했고 창춘(長春), 지린(吉林)을 연이어 점령했다(汪朝光. 2000, 448).

1946년 6월 중공동북국은 북한을 후방지역으로 이용하여 남만(南滿) 작전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같은 해 7월 북한에 대표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중국 동북민주연군(東北民主聯軍) 부사령원 샤오진광(蕭勁光)과 중공 북만분국(北滿分局) 서기장 주리쯔(朱理治)가 북한으로 파견됐다(丁曉春 외. 1987, 203; 呂明輝. 2013, 69). 1946년 8월 평양에 도착한 주리쯔와 샤오진광은 북한 공산당과 주평양소련군사령부를 방문, 대표기관인 동북국 ‘주조판사처’의 설립 허가를 얻어냈다.⁸⁾ ‘주조판사처’(대외적으로는 ‘평양이민공사⁹⁾)는 평양 화상인 위딩하이(魏鼎海)가 경영했던

-
- 7) 중국공산당은 1945년 9월 15일 중공 중앙 동북국의 설립을 결정, 중국 등베이 지역 중공 조직의 일원화를 도모했다. 설립 당시 동북국의 서기(書記)는 팡진(彭眞), 위윈은 천윈(陳雲)이 각각 임명되었다. 동북국은 1954년 11월 15일까지 존재했다. 중공 동북국에 관해서는 戴茂林(2017)을 참조 바람.
- 8) 朱理治金融論稿編纂委員會·陝甘寧辺区銀行記念館 編. 1993, 224. 판사처 설립 시기에 대해 덩쉐송(丁雪松)은 1946년 7월 샤오진광(蕭勁光)과 주리쯔(朱理治)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회고했다(中共中央党史資料征集委員會 編. 1988, 625). 그러나 주리쯔에 관한 다른 자료(宋霖 외. 2007, 456-457)를 보면 두 사람이 7월 말에 하얼빈을 떠나 8월 다렌(大連)에 도착했다고 기술되어 있어 8월일 가능성이 높다.
- 9) 1945년 2월 알타협정에서 소련정부는 장제스 국민정부를 원조할 것을 약속하고, 그해 8월 14일 소련의 몰로토프 외무인민위원이 국민정부의 왕세제(王世傑) 외교부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도 “소련정부는 중화민국에게 ……군수물자와 기타 물질적 원조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원조는 모두 중화민국 중앙정부인 국민정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鹿島平和研究所 編. 1987, 25-213). 따라서 당시 소련의 중국공산당 지원은 합법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재 중공 동북국 판사처는 대외적으로 ‘이민공사’의 명칭으로 활동했던 것이다(宋霖 외. 2007, 457).

중화요리점 동화원(東華園)에 사무소를 마련함과 동시에(宋霖 외. 2007, 457-458), 진남포, 신의주, 만포, 나진에 분처를 설립했다(呂明輝. 2013, 68-86).

‘주조판사처’의 임무는 1946년 9월 2일 천윈(陳雲)이 보낸 전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공과 북한 사이에 무역을 실시할 것. 둘째, 북한 역내에 방직, 신발, 성냥공장을 설립할 것. 셋째, 북한 역내에 상점을 개설할 것. 넷째, 북한의 지리적 조건을 이용해 다롄(大連)과 북만 간의 이동 통로를 확보할 것(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0, 468).

천윈의 전문에서 북한 화교에 관한 지령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주리쓰가 중공 동북국에 올린 사업 보고서¹⁰⁾(1947년 6월 27일)에는 북한 화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 중국 국내에서 파견된 간부가 화교 관련 관리 업무를 맡도록 했으며, 신의주, 평양, 진남포 3개 지역의 화교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했다. 둘째, 화교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국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공산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했다. 셋째, 북한 역내에 16개의 화교학교 재건에 협력했다(張文傑 외. 1993, 294).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해방 직후 북한지역 화교를 관리하던 왕징웨이 정권 영사관이 폐쇄되고, 화교 지도자들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북한 정부와 북한화교를 연결하는 파이프가 끊어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부는 화교가 북한정부의 정책에 순종하고 북한의 사회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조직 설립에 ‘주조판사처’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中共中央黨史資料徵集委員會 編. 1988, 630). 주조판사처도

10) 이 보고서는 동북국 주재 북한 판사처가 1946년 9월부터 1947년 6월까지의 업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은 ‘북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사항’ 5개 항목과 ‘우리가 북한측에 협력한 사항’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張文傑 외. 1993, 294).

북한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북한화교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공동북국의 비준을 받아 화교조직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 화교연합회 설립과 화교 관리

1946년 가을 북한 정부는 우선 노동당 내에 중앙교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초대 주임에는 당시 북한 내무상이던 박일우가 취임했고, 비서장에는 작곡가 정율성의 중국인 아내인 덩쉐송(丁雪松)이 발탁됐다. 덩쉐송이 중심이 되어 북한화교를 대표하는 조직인 화교연합회 설립이 추진되었다. 덩쉐송은 주리쯔의 소개장을 지참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중공 간부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때 평양에 파견된 요원이 중공 화둥(華東)해방구 소속의 왕징예(王靜野)와 왕페이(王裴)였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몇 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947년 2월 1일 ‘북조선화교연합총회’(이하 ‘화교연합총회’)가 평양에서 정식 출범했으며, 위원장은 왕징예, 비서장 겸 조직부장은 왕페이가 각각 임명되었다(楊昭全 외. 1991, 321; 中共中央黨史資料徵集委員會 編. 1988, 631). 그뒤 화교연합총회 선전부장을 역임한 평광한(彭光涵, 재임기간은 1947년 7월-1948년 3월)의 구술에 따르면, 설립 당시 화교연합회는 북한 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평양 소재 화교연합총회에는 중국 국내에서 파견된 간부 20여명과 북한인 간부가 함께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鄭奕鈞. 2005, 215).

화교연합총회 설립과 병행하여 화교의 인구가 많은 시, 군에 화교연합회가 각각 조직되었다(余以平. 1984, 97). 평양시의 화교연합회 위원장은 왕취정(王守正), 신의주시는 차이취페이(蔡去非), 남포시는 궁허쉬앤(宮和軒), 평안북도는 리충푸(李從樸), 황해도는 샤슈핑(夏秀峰), 함경북도는 푸신자이(樸辛哉)가 각각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중공에서 파견된 인물이었다. 각 화교연합회의 부위원장 이하의 간부는 주로 현지 화교가 임명되었다. 이 조직의 탄생으로 해방 이전부터 존재했던 화교조직은 화교연합회로 대체되었다(丁雪松 외. 2000, 171).

각 도 화교연합회 대표들이 참가하는 화교연합총회 첫 대표 대회가 1947년 4월 15일 소집됐다. 이 대회에서 왕징예가 총회 위원장으로 추인되었고, 연합회의 임무가 결정되었다. 연합회의 임무는 북한화교가 중국공산당에 의한 중국 전 국토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고, 북한 정부의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다(滕松傑. 2002, 780-781). 다만 당시 화교연합총회 및 각 도 화교연합회 위원장 직에는 모두 중공 간부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업무내용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보다는 중공군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었다(中國駐朝鮮大使館. 1958).

당시 북한화교 가운데 남한지역에 설립된 장제스 국민정권의 총영사관과 연락을 취하는 등 국민당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의 화교가 존재했고, 중국공산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 또한, 해방 이전부터 존재하던 조선인과의 대립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북한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丁雪松 외. 2000, 172-173). 화교연합회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화교의 기존 관념을 바로잡는 사상교육이 필요했다. 화교연합회가 화교 가운데 적극 분자를 선발하여 평양에서 특별연수를 시켜 그들을 연합회의 중견간부로 육성하는 것을 첫 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3. ‘공농간부훈련반’과 ‘교원훈련반’의 개설

딩쉐송은 화교연합회의 초기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우리는 먼저 간부와 교사 양성사업에 착수했다. 1947년 봄부터 여름까지 화교연합총회는 2개의 화교 훈련반을 조직했다. 즉, 화교상회의 점원이나 공장 노동자들 가운데 선발된 화교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공농간부훈련반과 화교소학교 교사와 소수 지식인으로 구성된 교원훈련반이 바로 그것이다. 그다음에 화교 중·소학교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해방 전 북한에는 20여개의 화교소학교가 있었는데 일본 패전 직후 화교소학교의 운영은 중단되었다. 우리는 학교 복구 건설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각 도, 시, 군에 40-50개의 화교소학교를 개교시켰다.”(丁雪松 외. 2000, 173-174). 두 개의 훈련반은 사상교육을 위주로 진행됐다.

1947년 봄 첫 화교 공농간부훈련반이 평양에서 소집됐다. 훈련생은 1946년 10월부터 1947년 봄에 걸쳐 각지 화교연합회 조직 과정에서 적극성을 보인 화교 가운데, 무산계급에 속하는 소농과 빈농, 점원, 노동자가 선발됐다. 한편, 지도교관은 3명이었다. 주임은 추이청즈(崔承誌), 대대장은 주즈팡(朱子芳), 지도원은 덩옌(丁巖)이었다. 이들은 모두 중공 해방구에서 교육 경험을 쌓은 중공 간부였다. 공농훈련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교관 편성으로 보아 교원훈련반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훈련 프로그램이 종료되자 훈련생은 각지의 화교연합회에 파견되어 위원장이나 조직과장 등의 요직을 맡았다. 그 가운데 송위구이(宋玉貴)는 중공 간부 왕취정의 후임으로 평안남도 및 평양시 화교연합회의 위원장, 왕정첸(王正乾)은 중공 간부의 후임으로 함경북도 및 청진시 화교연합회의 위원장으로 각각 발탁되었다(宋達. 1988, 89).

1947년 7월 평양 화교소학교에서 두 번째 특별 연수반인 ‘교원훈련반’이 개최되었다. 각지 화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송다(宋達), 류신(呂欣), 쉬위안취엔(徐源泉), 리청상(李承祥), 린성주(林聖久), 류치엔(劉備)을 비롯한 화교소학교 교원 50여명이 평양에 소집됐다. 교원훈련반의 지도 교관은 공농훈련반과 똑같이 주임은 추이청즈, 대대장은 주즈팡, 지도원은 덩옌이 각각 맡았다. 이 가운데 추이청즈는 교육내용 전반을 관리했고, 주즈팡은 사상이론 교육에 중점을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혁명이론을 가르치면서 국민당과 장제스의 비리를 파헤치고 국공내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덩옌은 훈련생의 생활면을 돌보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劉備. 1990, 170-172). 그 외에 덩쉐송은 정기적으로 훈련반을 찾아 강의를 진행했다.

훈련생이었던 송다는 훈련반의 교육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훈련반에서는……첫째로 장제스 국민당에 대한 환상과 맹목적인 정통관념에 대해, 둘째로 8년간의 항일전쟁 성과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어느 쪽에 있었는지, 셋째로 중국 국내 해방전쟁의 본질과 목적 등의 주제를 놓고, 교관의 강의와 훈련생의 학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3개월간의 학습을 거쳐 우리는 위대한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배우고, 중국 해방전쟁의 본질과 그 의의를 깨달았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의 혁명이론이야말로 전인류를 해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宋達. 1988, 89).

훈련생은 특별 연수를 받은 후 평양 화교연합총회에 일부만 남고 그 나머지는 각 도, 시, 군의 화교학교에 배치되었다. 화교연합총회는 그들을 통해 각지 화교학교의 복구건설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IV. 북한 화교학교 건설의 본격화

1. 화교소학교의 재건

1946년 당시 신의주를 비롯한 화교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화교소학교 ‘교동회’의 노력으로 화교학교가 점차 재개됐다(吉林省歸國華僑聯合會 외. 2018, 200), 그러나 북한 전역에서 보면 폐교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화교학교는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교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공 해방구의 중공 파견원은 이 무렵 화교학교의 교원을 겸임했다. 예를 들면, 1946년 초 산둥(山東)지역에서 파견된 중공 간부 사슈평과 주즈팡이 해주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그들은 북한에서 국공내전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구입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현지 화교와 연계를 하면서 주즈팡을 중심으로 해주화교소학교를 재건했다(慕德政. 2001, 95). 1946년 10월 화교연합총회가 업무를 시작할 무렵 중국 동베이 지역에는 전황의 변화에 따라 중공 랴오둥군구(遼東軍區) 후방 담당자와 지방 정부의 인원이 북한으로 철수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신의주, 평양, 용암포, 남포, 중강 등지의 화교소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다(楊昭奎 외. 1991, 310). 한편, 1947년 3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의 훈련반 프로그램이 종료되자, 다음 단계로 화교소학교의 재건이 북한 전역에서 전개되어 1947년 말까지 35개의 화교소학교가 개교됐는데 학생수는 총 1,855명, 교원은 55명에 달했다. 1948년 6월에는 화교연합총회 내에 교육부가 설치됐으며 같은 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각지의 화교학교 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집중연수가 실시됐다. 그리고 학생수가 20명을 넘는 지역에 연이어 화교소학교가 설립됐다(余以平. 1984, 98). 이러한 화교소학교 재건 결과 1948년 말 현재 화교소학교는 89개교로 증가했고, 학생수는 학령 아동의 82.6%에 달하는 5,986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교원수는 149명에 불과,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는 40명에 달했다(『民主華僑』. 1949.3.21, 2면).

<표2>는 1949년 초 각지 화교연합회가 작성한 자료와 『民主華僑』(1948년 11월-1949년 3월)에 게재된 화교소학교 관련 기사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2> 북한 화교소학교 72개교의 실태(1948년 9월-1949년 3월)¹¹⁾

지역/1947년 화교인구	학교명	학생수	교원수	북중아동연합회		학부모간담회		
				회수	참가자수	회수	참가자수	
평양시/ 3,921명	평양화교소학교본교	129	-	6	238	14	1,822	
	평양화교소학교제1분교	86						
	평양화교소학교제2분교	73						
	평양화교소학교제3분교	44						
	평양화교소학교제4분교	65						
	평양화교소학교제5분교	30						
	평양화교소학교제6분교	54						
평안남도/ 3,736명	남포110명, 강서40명, 용강22명, 개천31명, 안주44명, 평원13명, 숙천22명, 순천34명, 양덕17명		-	-	-	-	-	
신의주/ 약7,000명	본교,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분교	약1,000	-	-	-	-	-	
평안북도/ 약13,000명(신의주 이외지역)	용암포화교소학교본교	153	8	-	616	-	1,285	
	용암포화교소학교북분교	43						
	용암포화교소학교양분교	49						
	용암포화교소학교남분교	34						
	용암포화교소학교□분교	31						
	벽동화교소학교	28						1
	강계화교소학교	146						2
	(강계)별평동화교소학교	83						1
	만포화교소학교	61						1
	대유동화교소학교	31						1

11) 신의주화교소학교 학생 '약 1,000명'은 필자가 1948년 말 북한화교 학생수 5,986명, 당시 신의주 화교인구 7,000여명인 것을 참고로 추측한 것이다. '북중아동연합회' 참가자 수에는 북한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는 판독 불명, '+'는 실제 수가 표내 수보다 많다는 의미이다. '학교명'중 지역명과 '본/분교'만을 밝힌 부분의 학교 명칭에 대해서는 제V장의 제4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운산북진화교소학교	124	3				
	초산화교소학교	31	1				
	삭주화교소학교	139	3				
	희천화교소학교	34	1				
	자성군중강, 자성군삼풍, 후창, 의주, 의주군위화, 선천, 정주, 총375명		-				
함경북도/ 5,470명	나진화교소학교	68	2	1	80	1	46
	나남화교소학교	73	-	1	1168	3	184
	길주화교소학교	37	1		0	3	173
	성진화교소학교	32	-		0	1	32
	종성화교소학교	23	1		0	1	10
	유선화교소학교	31	-		0	4	137
	회령화교소학교	77	-	1	150		
	웅기화교소학교	68	2	1	70	-	-
	칭진화교소학교	178	4	1	62	3	112
	무산화교소학교	35	-	1	400	2	80
경흥화교소학교	-	-	-	-	3	95	
함경남도/ 2,753명	혜산화교소학교	84	2		0	1	150
	흥남화교소학교	152	-	3	1,000	2	84
	함흥화교소학교		2		0	1	50
	원산화교소학교	94	3	-	-	-	-
	원산화교소학교갈마분교 함주41명, 장전11명	46	1	-	-	-	-
황해도/ 3,546명	해주화교소학교본교	61	2	11	4,642	21	609
	해주화교소학교본교	49	1				
	안악화교소학교	35	1				
	송림, 선천, 재령, 신막, 사리원, 신평군남천, 송화, 총382명		-				
40,863명	학교수 72개	4,753 +	44+	26+	8,426+	60+	4,869+

출처: 平壤特別市華僑聯合會. 1949; 咸鏡北道華僑聯合會. 1949;
 平安南道華僑聯合會. 1949; 朝鮮華僑聯合總會教育部. 1949;
 咸鏡南道華僑聯合會. 1949; 平安北道華僑聯合會. 1949; 黃海道華僑聯合會.
 1949; 『民主華僑』. 1948.11-1949.3; 이정희 외. 2019, 311;
 국사편찬위원회. 1990a, 436.

먼저 화교소학교에 관한 기본 상황을 보도록 하자. 지역별 소학 수는 평안북도 28개교, 함경북도 11개교, 황해도 10개교, 평안남도 9개교, 평양시 7개교, 함경남도 7개교였다. 평양, 신의주, 용암포, 남포, 강계,

삭주, 운산북진, 청진 화교소학교의 학생수는 모두 100명을 넘었으며, 학생수 20명 미만의 화교소학교도 있었다. <표2>의 23개 화교소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42명이었고, 가장 많은 곳은 강계의 별평동 화교소학교(83명), 가장 적은 곳은 증성화교소학교(23명)로 교원 배치가 지역별로 큰 차가 존재했다.

다음으로 각 도별 화교인구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도록 하자. 평양시는 12.27%, 평안남도 8.91%, 평안북도(신의주 제외) 10.48%, 황해도 14.86%, 함경북도 11.37%, 함경남도 15.55%였다. 전체적으로 9%부터 16%사이에 걸쳐 있어 평균인 12.24%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해방 초기 북한 지역 화교학교 재건은 모든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표2>의 화교소학교 29개교의 ‘북중아동연합회’와 ‘학부모간담회’의 시행 상황을 보도록 하자. 실시 횟수는 연합회(교류회)가 26회, 간담회가 60회, 참가자는 연합회 8,426명, 간담회 4,869명이었다. 다만, 연합회의 참가인원에는 북한학생도 포함되어 있었고, 나남, 무산, 흥남 등 지역에서는 북한 측 주최 축하행사에 현지 화교 학생이 참가한 경우도 연합회의 일종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연합회 참가자 수가 과장되어 있을 것이다. 학교별 실시 상황을 비교해 보면, 흥남화교소학교를 제외한 모든 화교학교는 연합회보다 간담회에 보다 적극적이었으며, 연합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은 학교도 적지 않았다. ‘북중아동연합회’ 등 화교학교와 북한사회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장을 바꿔 후술하도록 하고, 다음 절에서는 화교중학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북조선화교중학교의 설립과 교육 상황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는 화교 중학교가 없었다. 1947년 이후 화교소 학교가 증가하자 화교연합총회는 평양에 화교중학교의 설립계획을 세웠다. 다만, 중학교 설립에는 교사 부지와 자금, 교육설비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정부와 중공 동북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북한정부는 평양 대타령(보통강 구역 내) 소재 교사 부지를 제공했고, 중공 동북국과 북한정부가 건설 자금으로 각각 150만원을 지원했으며, 북한 화교가 100만원을 모금했다. 또한 다롄카이동공서(大連開東公署)가 교육설비의 물자를 기부했다. 교사 건설은 1947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같은 해 9월 15일 개교했다.¹²⁾ 새로 설립된 화교 중학교는 1948년 8월까지 반년제의 단기교육을 실시했다.

1947년 9월 15일 개교한 ‘북조선화교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각지에서 선발된 82명이었다. 신입생은 12-13세부터 20세 이상까지 연령차가 심했다. 화교 중학교 교장은 화교연합총회 위원장인 왕징제가 겸임했고, 부교장은 추이청즈, 교무주임은 주즈팡이 각각 취임했고, 상기의 훈련반 교관이 그대로 화교 중학교의 교육운영을 주도했다. 화교 중학교의 교육방침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국민당에 대한 정통관념을 불식시키고 식민지시기 받은 교육의 영향을 일소함과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 자각을 높이는 데 있었다(『民主華僑』. 1949.12.3, 4면). 이러한 방침에 따라 화교 중학교는 ‘학용일치(이론과 실천의 일치)’를 원칙으로 정규수업을 줄이고 학생들의 자습이나 토론에 의한 교육방법이 강조

12) 『民主華僑』 1948.12.7, 3면. 이 신문 기사에는 북한정부가 북한 화교중학교의 설립을 위해 150만원을 제공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자료인 吉林省歸國華僑聯合會 외(2018, 201)에는 당시 북한정부는 학교 건설 용지만을 제공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정부가 액면으로 150만원의 토지를 제공했는지 또는 건설 용지 외에 별도로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되었다(手稿資料. 추정년1948, 8-13). 또한, 학생들은 과외활동으로 화교연합회가 전개하는 계급투쟁이나 선전활동에도 참가했다. 화교 중학교는 1947년 겨울, 학생을 중심으로 극단을 조직하여 혁명연극인 ‘혈루의 원한(血淚讐)’ 공연 연습을 시작했다. 이 극단은 1947년 말부터 음력설이 끝날 때까지 평양, 남포, 사리원, 해주, 신의주 등 북한 서부의 주요 도시를 이동하면서 10회의 순회공연을 했다. 이 순회공연에는 연 1만여명의 화교가 관람했다(吉林省歸國華僑聯合會 외. 2018상, 203).

제2기(1948년 3월 1일-7월 15일) 학기의 학생은 92명, 교원은 5명으로 각각 늘었다. 이 시기 북한 체류 중공 간부가 본국으로 점차 소환되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교원 양성이 긴급한 과제였다. 화교 중학교는 선전 활동과 교원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고 학급편성을 문화반, 사범반, 보통반의 3개 반으로 바꿨다. 제2기생에 대한 교육방침은 제1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교육 위주였고, 특히 문화반 학생은 혁명연극 ‘혈채(血債)’ 공연연습을 했다. 이들은 1948년 7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북한 동부지역인 웅기, 나진, 청진, 함흥, 원산 등지를 돌며 6회의 순회공연을 했다. 참관한 화교는 연 3,000명에 달했다. 순회공연이 끝나자 문화반의 학생 20명은 추이청즈의 인솔하에 중국으로 귀국했다. 사범반 졸업생 23명은 각지의 화교소학교에 배치되었다(吉林省歸國華僑聯合會 외. 2018, 203-205).

화교 중학교는 1948년 9월 1일 시작된 학기부터 정규교육이 실시됐다. 제2기 졸업생 가운데 남은 20명이 2학년, 새로 입학한 46명이 1학년이 되었다. 학생교육의 중점은 기존의 정치교육에서 정규교육으로 바뀌었다(『民主華僑』. 1949.12.3, 4면). 정규수업 시행 후 같은 학년의 학생 간 교육 능력 격차가 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학생의 연령은 14세부터 27세, 이수한 교육도 4년부터 7년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화교 연합총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8년 10월 12일부터 학기

말까지 세 단계로 나눠 ‘모범창조운동’을 실시했다. 모범학생은 8개 항목이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① 역사와 사상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자, ② 학업에 열중하고 솔선수범하며 남을 돕는 자, ③ 학교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학업과 임무를 기일 내에 수행하는 자, ④ 학생 간의 우호단결을 촉진하고, 교사를 존경하며 학교를 사랑하는 자, ⑤ 남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올바르게 하고 자신을 자각하는 자, ⑥ 새로운 학습방법을 모색하여 주위의 신뢰를 받는 자, ⑦ 규율 있는 생활과 절약, 인내심이 강한 자, ⑧ 예의 바르고, 특히 북·중 친선에 기여한 자(『民主華僑』. 1948.11.29, 4면). 이러한 모범학생의 기준은 공산주의 지지의 기본 원칙하에 학생이 재학 중에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망라한 것으로 화교연합총회의 화교학교 정규화 추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제8항에 “북중 친선에 기여한 자”를 삽입한 것은 화교연합총회가 북한측을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왜냐하면, 상기의 ‘북중아동연환회’가 이 시기부터 전개되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북중 학생 간의 우호활동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화교학교와 북한 현지 학교 간의 우호활동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이 선언된 직후, 화교연합총회는 제3차 각 도의 화교연합회 위원장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새로운 화교연합회의 임무로 북한화교가 북한정부의 각종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 채택되어 그 일환으로 ‘중조우호(中朝友好)’ 촉진을 위해 화교와 북한사람 간의 간부, 교원, 학생 차원의 연환회(교류회)와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결정되었다(『民主華僑』. 1949.3.21, 2면). 이러한 새로운 방침이 설정된 데는 북한정부가 그동안

연합회의 임무가 중공 지원에 편중된 것을 시정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들어 화교연합회 소속의 중공 간부가 중국으로 소환되자, 그들의 공백을 사상교육을 받은 북한화교가 메웠다. 당시 화교연합총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덩쉐송은 북한측 간부이기도 했다. 그리고 본장 제2절에서 서술한 대로 1948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된 평양 화교중학교의 ‘모범창조운동’의 규정에 “특히 북중 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지의 화교소학교에 전파되어 ‘북중아동연합회’와 같은 다양한 우호행사가 개최되었다. 당시 연합회의 개최상황을 평양에서 개최된 북중 학생 연합대회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8년 11월 20일 오후 5시 평양화교소학교 제1분교와 평양 제12인민학교(현지의 북한 학교)의 교직원 300여명이 제12인민학교에서 북중아동연합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의 시작이 선언된 후, 제12인민학교 소년단장인 전래선이 등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전대미문의 연합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중조(中朝) 간의 단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고, 식민지시기 조선인과 화교 사이에는 앙금이 있었지만, 해방을 맞은 오늘날 “우리 중조 아동들은 단결, 친선, 협조, 우애의 정신을 영원히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이 끝난 후 양 학교 학생 대표가 등단하여 굳게 악수를 했다. 이어 화교소학교 교사 덩꾸이량(丁桂樑)과 제12인민학교 교사 유치호가 축사를 했다. 축사의 내용은 상기의 전래선의 발언과 비슷했다. 축사가 끝난 후, 화교 학생과 북한 학생이 각 민족을 상징하는 춤을 공연했다. 이어 화교학교 소년단장 이종근의 폐회사가 있었고, 북한 학생들은 ‘소년단의 노래’를 합창했고, 화교학생들은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沒有共產黨就沒有新中國)라는 노래를 합창했다. 연합

대회 폐회 후 북한학생들은 회의장에서 정문까지 길 양옆으로 도열하여 화교학생들과 악수를 나누며 배웅했다(『民主華僑』. 1948.12.7, 4면). 연환회의 개최장소, 등단자의 순서 및 작별 프로그램 등으로 볼 때 이번 행사의 기획은 북한측이 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북중 학생 연환회는 각지에서 진행됐다. 1949년 초 각 도 화교연합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중 아동연환회가 조직되어 북한학생과 화교학생 간의 충돌이 감소했다거나(平壤特別市華僑聯合會. 1949; 咸鏡南道華僑聯合會. 1949; 平安北道華僑聯合會. 1949), 양측 학생 간의 교류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일정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V. 중공 간부의 귀국과 화교학교 관리의 변화

1. 중공 간부의 귀국과 화교학교의 혼란

1947년 중반 이후 국공내전은 중공군의 우세로 돌아섰다. 1948년 중공군은 등베이 각 지역을 차례로 장악했고, 1948년 9월 12일부터 시작된 랴오선전역(遼瀋戰役)은 같은 해 11월 9일과 12일 국민당군이 진시(錦西), 후루다오(葫蘆島), 청더(承德)로부터 베이핑 방면으로 철수하면서 중공군이 승리를 거두었고, 마침내 등베이 전역을 점령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중공군에게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약화된 반면, 중공은 점령한 등베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간부 확보가 긴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북한에 파견된 중공 간부의 본국 소환이 시작되었다. 화교연합총회의 왕징에 위원장은 1948년 5월, ‘주조판사처’의 주리쯔 대표는 1948년 10월에 각각 귀국했다. 북한의 화교교육을 이끌어 온 중공

간부의 부재로 인해 각지 화교학교의 운영과 조직이 마비되고, 교사 부족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또한 자금문제도 여전히 화교학교의 운영을 압박했다. 해방 후 북한 화교의 학교 사업을 담당해 온 화교연합회는 학교 운영자금의 확보를 위해 학비 징수 대상을 재학 학생이 아닌 모든 화교로 바꾸었고, 그래도 부족한 자금은 ‘교동회’가 염출했다. 그러나 학생수 급증과 화교 유력자의 월남으로 인한 감소로 인해 화교의 학비 부담액은 날로 증가해 각지 화교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咸鏡北道華僑聯合會, 1949).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화교연합회는 화교학교의 운영을 북한정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를 둘러싼 교섭에 들어갔다.

2. 북한정부의 화교학교 관리 접수

1949년 3월 11일 북한정부는 내각 부수상 김책, 교육장관 대리 부상(차관) 남일의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30호 ‘중국인 학교 관리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결정서는 “학교(화교학교: 인용자)의 물질적 토대와 관리에 있어서 또는 교육 교양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애로와 결점이 존재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이를 타개하고 중국 인학교 교육사업의 충실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중국 동북행정위원회와 북조선화교연합총회의 요청을 접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즉, 화교학교의 이관은 중국 동북행정위원회와 북한 화교연합회가 이를 제안한 것으로 명기된 것이다.

한편, 북한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는 내용은 결정서 첫 부분에 나타나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정책은 조선 재주의 중국인민들의 자녀에게 교육을 받을 조건을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육

열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수학의 길을 저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 이전에는……약 30개소의 학교에서 1,0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교육문화부문에 있어서도 중국인들의 자유발전의 모든 조건이 조성되어 금년부터 87개소의 초등학교에서 약 6,000명의 학생이 수학하게 되었으며,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방조로 중학교의 설립까지 보게 되었다.” 즉, 식민지시기 북한화교는 조선민족과 같이 일제의 억압을 받아 왔지만 해방 후에는 북한정부의 우호 속에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문맥을 위의 ‘북중아동연합회’와 관련시켜 본다면, 북한정부가 화교의 북한경제 건설 참여와 화교를 통한 북·중관계의 우호를 목적으로 화교학교에 대한 관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서에 의해 1949년 4월 1일부터 38선 이북지역 소재의 모든 화교학교를 화교연합회로부터 인수하여 북한 교육성에서 이를 관리함에 따라(제1조), 북한 정부는 1949년 7월 말까지 각지 화교학교의 교사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제2조), 화교학교 교원과 사무원에게 북한인과 같은 대우를 하며(제6조), 화교학교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출하게 됐다(제7조). 그리고 화교학교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북한 교육성 보통교육국 내에 정원 5명의 중국인교육부를 신설하고, 각 도 교육부에 화교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를 1명씩 배치(제3조)하도록 했다.

또 교육성 편찬관리국 내에 편수 5명을 증원하여 화교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 및 교수 요강을 제정하고 교과서의 지정과 편집을 맡아(제3조, 제5조) 교육방침을 지도하게 됐다. 평양 화교 중학교 내에 중국인 교원양성소를 설치하여, 현직 화교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사업을 1949년 8월부터 실시(제4조)하는 동시에, 1949년 7월 말까지 신의주에 화교 중학교를 증설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북한정부는 1949년 8월까지 화교학교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

신, 학교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90b, 363-365).

3. 화교학교 증설 및 교육시설 개선

1949년 3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정부가 북한 역내 화교학교의 관리를 이관한다고 보도하면서 향후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① 1949년 3월 20일까지 평양과 신의주 소재 화교 소학교의 교사의 신분을 보장할 것, ② 같은 해 7월까지 모든 화교학교의 교사와 교육시설 문제를 해결할 것, ③ 같은 해 8월까지 평양 화교중학교 내에 교원양성소를 개설할 것(『民主華僑』. 1949.3.21, 1면). 북한정부는 이 계획을 차례로 실천에 옮겼다. 그 결과 1949년 12월 현재 북한의 화교학교는 화교소학교 101개교, 화교중학교 2개교, 학생총수 6,738명, 교원 약 300명으로 증가했다(楊昭全 외. 1991, 312). 화교학교의 증설 및 교육시설의 개선에 관한 문제는 각 도 교육부의 장학사가 앞장서서 해결해나갔다. 장학사는 도내 화교학교를 순시하면서 교사, 운동장, 책상, 의자 등 교육시설 현황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을 모아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화교연합회 기관지인 『民主華僑』는 당시 화교학교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표3>은 그러한 기사 가운데 194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동 신문에 게재된 38건의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표3> 화교학교 증설 및 교육시설 개선 현황(1949년 3월-12월)

지역	학교명	학교 건설 사항	실시일	학교 건설 분담 상황
평양/ 2개교	평양중국인 제1인민학교	교사이전(2층건물,이전 평양 제5인민학교), 운동장, 교육시설, 비품	9월1일	평양 북한 학교

	강남중국어인민학교	교사 신축	11-12월	건축자재(약80만원)는 북한정부, 화교는 노무 제공
평안 남도/ 9개교	강선중국어인민학교	교사이전(교실4개,이전 민청위원회 회의실), 기숙사(3개방,이전 제강소사택), 보수, 비품	봄	교사, 기숙사, 건축자재는 북한정부 및 지방업체, 비품은 북한학교, 화교는 보수노무제공
	재동중국어인민학교	학교 신설	봄	북한정부
	남포중국어인민학교	교사 신축(혹은 이전)	봄/여름	북한정부
	강서중국어인민학교	교사 신축(혹은 이전)	봄/여름	북한정부
	안주중국어인민학교	교사 신축(혹은 이전)	봄/여름	북한정부
	신안주중국어인민학교	교사신축(혹은 이전)	봄/여름	북한정부
	개천중국어인민학교	교사신축(혹은 이전)	봄/여름	북한정부
	평원중국어인민학교	교사신축(혹은 이전)	봄/여름	북한정부
	순안중국어인민학교 (대동군)	교사 보수	10-12월	보수비 총6만원을 북한정부와 화교, 화교연합회가 공동으로 분담
신의주/ 4개	신의주중국어인 제1인민학교 (전 본교)	교사이전(교실 6 개, 전 제3초급중학교), 운동장, 운동도구, 기숙사	4월1일	신의주 북한학교
	신의주중국어인 제3인민학교 (전 제4분교)	이전 신의주화교소학교 제3분교와 통합	4월1일	화교학교
	신의주중국어인 제2인민학교 (전 제1분교)	신의주의 타 화교소학교와 통합	4월1일	화교학교
	신의주중국어인 제4인민학교 (전 제5분교)	이전 신의주화교소학교 본교 교사로 이전	4월2일	화교학교
평안 북도/ 3개	정주중국어인민학교	교사 신축	10월말	북한정부
	용암포중국어인민학교 (전 남시분교)	교사이전, 보수	가을	교사와 보수자재는 북한정부, 화교는 5,000원 모금과 노무

■ —— 해방 초기 북한의 화교학교 재건과 중국공산당 및 북한정부의 역할 ■ 송우창

	후창중국인 제3인민학교	교사이전(전 후창초급 중학교), 운동장, 보수, 비품	가을	교사와 운동장은 후창북한 학교, 화교는 보수와 비품
함경 북도/ 6개	북청중국인 인민학교	학교 신설	봄	북한정부
	무산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이전(건물의 절반 사용), 보수	봄/여름	교사는 북한정부, 보수는 화교
	나남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이전, 운동장, 비품	6월2일	교사와 운동장은 북한정부, 비품은 화교
	용기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신축(혹은 이전), 비품	가을	교사와 비품은 북한정부, 화교 모금 2만원
	직하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이전, 보수	가을	교사는 북한정부, 보수는 화교
	갈주중국인 인민학교	교사 보수, 기숙사 증축	9-11월	화교 모금 83,500원과 노무
함경 남도/ 8개	장전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이전(제2층), 1층은 화교연합회	4월	북한정부
	갈마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신축(교실 2개)	7월	화교(원산 갈마리)
	원산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신축	7-8월	화교, 화교학교 학생과 교원
	흥남중국인 인민학교	교사 보수	8월	건축자재는 북한정부, 화교는 모금 3만원과 노무 제공
	갑산중국인 인민학교	학교 신설	봄/여름	북한정부
	함흥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이전(교실4개, 이전 함흥 제3인민학교의 일부), 운동장, 운동기구	9월1일	함흥 북한학교
	영흥중국인 인민학교	학교 신설	9월	북한정부
	단천중국인 인민학교	학교 신설	가을	북한정부
자강도/ 4개	운봉중국인 인민학교 (자성군삼풍면)	운동장 보수, 사무실건물증축, 비품	봄	화교 모금 3,400원, 화교와 화교 학생 노무제공
	위원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이전, 보수	봄/여름	교사는 북한정부, 보수는 화교
	강계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신축, 비품	7월	화교

	자성중국인 제4인민학교	교사이전(전 북한 인민군 식당), 운동장, 비품	여름	교사와 운동장은 인민군시설, 화교는 보수와 비품 제공
황해도/ 2개	해주중국인 인민학교	교사신축(교실11개, 사무실), 운동장1,000㎡, 농지2,000㎡, 운동장 보수	봄/여름	교사, 운동장은 북한정부, 화교는 모금5만원, 운동장 보수
	사리원중국인 인민학교	교사보수, 비품	가을/겨울	화교 모금 9만원

출처 : 『民主華僑』. 1949년 4월-12월의 기사를 근거로 필자 작성.

먼저 교육시설의 개선이 확인된 38개교의 화교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평양 2개교, 평안남도 9개교, 신의주 4개교, 평안북도 3개교, 함경북도 6개교, 함경남도 8개교, 자강도 4개교, 황해도 2개교였다. 이 가운데 26개교는 1949년 봄부터 여름 사이, 나머지 12개교는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새 교사 이전, 신축, 보수 등이 이루어졌다. 또 1950년 1월 이후의 『民主華僑』에서는 화교학교의 시설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¹³⁾, 북한정부의 화교학교 교육시설 개선 계획은 북한 전역에서 2개 학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육시설의 개선 항목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학교 신설과 통합, ② 기존의 교사, 숙소, 운동장의 이양, ③ 교사, 숙소, 운동장 건설 또는 보수, ④ 교육 비품 보충. 이 가운데 ①, ②, 그리고 ③의 필요 건축자재는 북한정부나 현지 학교와 업체가 이를 담당했고, ③과 ④에 필요한 노무와 일부 자금은 화교가 부담했다. 또한 ④에 관해서는 현지 북한학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다. 일련의 개선사업에 대한 북한화교의 참여와 공헌도는 화교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있는 지역일수록 기부금이 많이 모였고, 학교 건축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3) 다만, 1950년 4월의 『民主華僑』(1950.4.26, 3면)기사에 북한정부가 강서군 화교학교에 숙소를 갖춘 건물을 배정했다는 것이 한 차례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2차 배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1949년 9월 새 학년을 맞아 신의주에 화교 중학교가 설립됐고, 평양 중국인중학교 내에 중국인 교원양성소가 증설됐다(이정희 외. 2019, 221-222, 505-506).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부 화교소학교에 대한 교육시설의 개선은 1949년 말까지 지연되기는 했지만, 북한정부는 화교 학교 인수 당시에 결정한 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했다.

4. 화교학교 조직기구 및 교육방침의 변화

북한정부의 화교학교 인수사업은 교명 변경에서 시작됐다. 북한의 화교 학교의 교명은 식민지 시기부터 지역명에 ‘화교학교’를 붙이는 형식이 주를 이루었고, ‘지명’과 ‘화교학교’ 사이에 ‘시, 군, 면’등의 행정구역 용어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1949년 4월 1일 이후 화교학교의 명칭은 ‘화교소학교’는 ‘중국인 인민학교’로, ‘화교중학교’는 ‘중국인 중학교’로 바뀌었고¹⁴⁾, 지역명 뒤에 행정구역 용어는 붙이지 않는 것으로 통일되었다. 또한, 평양이나 신의주와 같이 본교와 분교로 구분되어 있던 지역의 화교학교는 ‘중국인’과 ‘인민학교’ 사이에 순번을 끼워 넣었다. 예를 들면, ‘평양화교소학교 본교’는 ‘평양 중국인 제1인민학교’로 바뀌었다(이정희 외. 2019, 622-627).

이어 북한의 각 지방정부는 관내 화교학교 교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평양시의 경우, 1949년 4월 18일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 교육부는 시내 화교학교의 교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으며, 수여식 개최 전 북한인 과장과 장학사가 화교교원을 개인면담하고 심사를 실시했다. 전 화교 교원에게 임명장이 수여되었지만, 교원의 임명이 북한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民主華僑』. 1949.5.16,

14) ‘중국인학교’의 명칭은 북한측이 1949년 3월 말부터 이미 사용했고, 『民主華僑』는 1949년 7월 18일 처음으로 ‘자강도 희천중국인인민학교’의 명칭을 사용했다(『民主華僑』. 1949.3.21, 1면; 1949.7.18, 4면).

4면). 북한정부는 같은 시기 각 화교학교에 북한인 교원을 파견하면서 1년 사이에 북한 역내 화교학교 교원은 300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화교학교의 모든 수업은 북한정부 이관 이전과 같이 중국어 강의가 보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 중국 등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북한인들이 화교학교 교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교학교의 조직도 1949년 9월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평양화교중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서기’(書記)라는 직위가 새롭게 설치됐다. 또한 화교학생의 학부모가 참가하는 ‘학부협회’와 학교경영의 최고기관인 ‘평의회’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직상의 변화는 북한 현지 학교의 관리 제도를 화교학교에 적용한 것으로, 종래의 ‘교동회’ 기능은 약화됐다. 같은 해 12월 각지의 화교소학교에도 ‘학부협회’가 연이어 설립됐고, ‘아동단’은 ‘소년단’으로 교체됐다. 1949년 12월 3일 『民主華僑』에 실린 평양화교중학교의 추이청즈 교장의 기고문에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지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과 마오쩌둥 사상을 배우고, 소련의 선진적인 문화와 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건설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했다(『民主華僑』. 1949.12.3, 4면). 또한 1950년 7월 15일 『民主華僑』에 게재된 평양 중국인중학교 모집요강에 학교의 교육이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방침에 따라 과학지식과 민주사상을 가진 조국과 민주 조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두었다(『民主華僑』. 1950.7.15, 2면).

이와 같이 이관 후에 화교학교의 교육시설과 조직구조에 여러 변화가 일어났고, 교육방침은 중국어 교육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에서 생활하는 화교학생으로서 자기 조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VI. 결론

본고는 해방 초기 북한정부와 중국공산당의 화교정책과 그로 인한 북·중관계의 여러 단면을 검토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북한 화교학교의 재건 과정에서 북한 화교연합회가 작성한 각종 자료와 관련자들의 구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상기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일전쟁 시기 왕징웨이 정권과 현지 중화상회의 자금지원, 그리고 조선 주재 중화민국영사관의 강력한 지도하에 각지에 화교학교가 증설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왕징웨이 정권 영사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사관원은 조만식 등 북한의 민족주의자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했다. 북한에선 1945년 말 반공, 반소 세력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왕징웨이 정권의 영사관이 폐쇄되고, 영사관원은 시베리아로 추방되었다. 게다가 중화상회의 일부 중요인사가 체포되는 사건까지 터져, 다수의 화교상이인 서울로 월남했다. 그러한 사정은 화교학교의 재건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북한정부의 입장에서 4만여명의 화교를 관리하던 영사관이 폐쇄되고, 화교 유력자가 부재함에 따라 화교사회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했다.

둘째, 일본의 패전 이후 중국 대륙은 국공내전이 발발했는데 이 사태는 북한의 화교학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공 중앙 동북국은 1946년 6월 북한을 등베이 전장의 후방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평양과 신의주 등지에 판사처를 설립했다. 북한정부는 판사처에게 북한화교의 관리 조직 구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판사처는 중공 동북국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화교 조직의 개설에 참여했다. 그 결과 평양에는 중공 간부와 북한인 간부로 구성된 북조선화교연합총회가 발족하였고, 각 도, 시, 군에는 화교연합회가 설립됐다. 연합회의 임무는 북한화교를 중국공산당의 지지기반으로 만드는 것과 북한의 사회건설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해방 초기 화교연합회의 핵심 간부는 중국공산당에서 파견된 인사였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지지기반 구축사업에 임무가 편중되어 있었다. 화교연합회는 사업전개의 첫 단계로 각지 화교학교의 재건에 힘썼다. 그리고 화교학교의 교육은 화교들 속에 존재하는 국민당에 대한 기대를 불식시키고,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상당한 수업이 사상교육에 배당되었다. 또한, 화교학생으로 구성된 연극단이 조직되어, 각지의 화교에게 혁명연극을 공연, 그들에게 계급의식을 높이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셋째, 1948년 들어 중국 동베이의 국공내전이 중국공산당에 절대적으로 우세해지면서 북한에 파견된 중공 간부의 소환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화교학교의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중공 간부의 소환으로 화교연합총회의 요직은 북한인 간부와 북한화교에 의해 채워졌다. 그리고 화교연합회의 업무는 화교를 북한의 사회건설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1948년 9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자 화교학교는 정규교육을 중시하는 한편, 북한정부의 주도로 현지 북한학교와의 사이에 ‘북중우호’를 촉구하는 ‘북중아동연합회’를 개최했다. 다만, 화교학교 운영경비는 여전히 북한화교가 충당하고 있었는데 화교학교와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그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중공 간부의 귀국으로 인해 화교학교의 교원 부족까지 겹쳐 화교학교 운영이 위기에 처했다. 화교연합회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화교학교의 운영을 북한정부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중공 동북국과 화교연합총회가 이 방안을 정식으로 북한정부에 의뢰했다.

넷째, 화교학교 이관 직전에 북한정부가 발표한 결정서에는 북한정부가 화교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부담하는 한편 학교교육과 운영관리 관련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었고, 북한정부는 1949년 8월까지 모든 화교학교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춰줄 것을

약속했다. 각 도 교육부의 장학사가 중심이 되어 같은 해 12월까지 이러한 계획과 약속은 완료되었다. 화교학교의 교육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학교 내부에 제도개혁이 시행되어 1949년 9월 이후 ‘학부협회’와 ‘평의회’, ‘소년단’과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다. 또한, 교육방침도 화교학생에게 북한의 사회건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상의 내용을 북한화교, 북한정부 및 중국공산당 각각의 입장에서 재검토 한다면 다음과 같다. 해방 초기 북한화교는 학교 설립의 필요감을 느꼈지만 운영자금의 확보와 교사진 부족으로 자생적인 학교재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중공 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화교연합회의 학교 설립사업에 적극 참가했고, 교원 부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북한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4만여 명의 북한화교를 현지의 사회건설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왕징웨이 정권의 영사관원들이 체포되고, 화교 유력인사의 월남으로 인해 화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나 수단을 상실한 상태였다. 중공측의 협력을 얻어 화교연합회를 만든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한편 중국공산당의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북한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화교의 참여와 지지는 매우 유익했다. 다만 화교연합회를 통해 북한화교를 이끌어가려는 북중 양측의 의도는 달랐다. 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북한화교 가운데 존재하던 낡은 체제에 대한 의존관념을 시정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화교연합회는 각지 화교사회와 접촉하는 방식의 하나로 북한 전역에서 화교학교를 재건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이 강조되었다. 1948년 중반, 등베이의 국공내전에서 중공군이 승리를 거두자 북한에 파견된 중공 간부의 소환이 시작됐다. 그러자 화교연합회는 북한인 간부와 화교가 그들의 공백을 메우면서 업무내용은 북한정부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됐다. 화교학교와 현지 북한

학교 간의 ‘북중아동연합회’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북중 우호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그러한 영향 때문이었다.

반면 화교학교는 중공 간부의 귀국으로 인한 교사 부족과 해방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자금난에 시달렸다. 화교연합회는 그 타개책으로서 화교학교를 북한 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중공측도 이것에 동의했다. 북한정부는 화교학교의 이관을 통해 북한화교에게 정부의 혜택을 실감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북한의 사회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 했다. 그리고 화교학교의 교육방침도 거주국인 북한의 존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이 해방 초기 북한지역은 화교의 자력에 의한 학교재건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목적으로 북한화교를 그들의 지지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각지에 화교학교의 재건을 본격화했고, 이에 대해 새로 건국된 북한정부도 국가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북한화교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화교학교의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나아가 화교학교를 전면적으로 이관했다.

투고일 : 2019.11.23. 심사완료일 : 2019.12.15. 게재확정일 : 2019.12.28.

참고문헌

〈간행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1990a, *北韓關係史料集·第9卷*, 서울.
1990b, *北韓關係史料集·第21卷*, 서울.
- 김학준. 1996, *북한50년사*, 서울: 두산동아.
- 와다하루끼 저·남기정 역. 2014, *와다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서울: 창비.
- 왕용진·송승석 역·왕칭더. 2017, *그래도 살아야 했다*, 서울: 學古房.
- 이정희. 2007, “중일전쟁과 조선화교: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5집*, pp. 107-129.
- 이정희·송승석·송우창·정은주. 2019, *한반도화교사전*, 서울: 인터북스.
- 曲曉範·劉樹眞. 2000, “當代朝鮮華僑的歸國定居及其安置史略”, *華僑華人歷史研究 2000(4)*, pp. 45-54.
- 吉林省歸國華僑聯合會·吉林省政協文史資料委員會. 2018, *朝鮮歸來: 朝鮮歸僑口述資料(上)*, 長春.
- 吉林省華僑歷史學會 編. 1986-1990, *吉林省華僑歷史學會論文討論會資料匯編 第1回-第3回*, 長春.
- 戴茂林. 2017, *中共中央東北局 1945-1954*,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慕德政. 2001, “朝鮮華僑教育的歷史回顧”, *華僑華人歷史研究 2001(4)*, pp. 58-67.
- 慕德政. 2003, “旅朝華僑與朝鮮經濟”, *韓華學報(韓華史料篇) 第2輯*, pp. 307-310.
- 撫順市社會科學院 編. 2001, *撫順市誌·第9-10卷, 軍事·政法卷, 人物卷*,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 宋達. 1988, “旅居平壤的幾件事”, *遼寧省華僑歷史學會, 遼寧僑史 創刊號*, 瀋陽, pp. 88-90.

- 宋霖·吳殿堯. 2007, *朱理治傳*,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滕松傑. 2002, “歸僑王瑞琴先生”, 山東省高密市政协文史委員會 編, *高密文史選粹*, pp. 779-786.
- 沈誌華. 2018, “中朝關係史研究中的幾個重要問題”,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8(1)*, pp. 120-127.
- 楊紹權. 1962, “日本投降前夕蔣介石與重光葵的一次談判”, 政協廣東省廣州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編, *廣州文史資料 第6輯*, pp. 13-19.
- 楊昭全·孫玉梅. 1991,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 楊韻平. 2007, *汪政權與朝鮮華僑(1940-1945): 東亞秩序之一研究*, 台北: 稻鄉出版社.
- 汪朝光. 2000, *中華民國史 第三編第五卷*, 北京: 中華書局.
- 劉少奇. 1985, *劉少奇選集·上卷*, 北京: 外文出版社.
- 劉倩. 1990, “朝鮮華僑的第一個革命搖籃”,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遼寧省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編, *遼寧文史資料選輯·第28輯歸僑的記憶*, pp. 169-172.
- 呂明輝. 2013, *朝鮮支援中國東北解放戰爭記實*, 沈陽: 白山出版社.
- 余以平. 1984, “朝鮮華僑教育初探”, 暨南大學華僑研究所, *華僑教育 第2輯*,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pp. 87-112.
- 愛新覺羅毓嶠. 2005, *愛新覺羅毓嶠回憶錄*, 北京: 華文出版社.
- 李盈慧. 1997, *華僑政策與海外民族主義(1912-1949)*, 台北: 國史館.
- 莊國土. 1992, “新中國政府對海外華僑政策的變化(1949—1965年): 新中國政府僑務政策研究之一”, *南洋問題研究 1992(2)*, pp. 1-11.
- 張文傑·王懷安·郭曉平 編. 1993, *紀念朱理治文集*,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 丁曉春·戈福錄·王世英 編. 1987, *東北解放戰爭大事記*, 北京: 中央黨史資料出版社.

- 丁雪松·楊德華. 2000, *中國第一位女大使丁雪松回憶錄*,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 鄭奕鈞. 2005, *歸僑彭光涵的往事·今事*, 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有限公司.
- 周南京 編. 2005, *境外華人國籍問題討論輯*, 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有限公司.
- 朱理治金融論稿編纂委員會·陝甘寧辺區銀行記念館 編. 1993, *朱理治金融論稿*,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中共中央黨史資料徵集委員會 編. 1988, *遼瀋決戰·上*,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0, *陳雲年譜·上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華僑問題研究會 編. 1956, *華僑人口參考資料*, 北京.
- 菊池一隆. 2005, “戰時期朝鮮に於ける華僑学校教育の実態と特質: 神戸中華同文学校との相互比較”, *神戸華僑の国際ネットワークに関する研究報告会資料 神戸*.
-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戦の記録: 米ソ両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東京: 巖南堂書店.
- 宋伍強. 2010, “朝鮮戦争後における朝鮮華僑の現地化について: 1958年前後における華僑聯合会と国籍問題を中心に”, *華僑華人研究* 第7号, pp. 7-29.
- 安井三吉. 2005, *帝国日本と華僑: 日本・台湾・朝鮮*, 東京: 青木書店.
- 王恩美. 2008,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国華僑: 冷戦体制と「祖国」意識*, 東京: 三元社.
- 李正熙. 2010, “南京国民政府期の朝鮮における華僑小学校の実態: 朝鮮総督府の『排日』教科書取締りを中心に”, *現代中国研究* 第26号, pp. 19-40.
- 鹿島平和研究所 編. 1987, *現代国際政治の基本文書*, 東京: 原書房.
- Kraus, Charles. 2014, “Bridging East Asia's Revolutions: The

Overseas Chinese in North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11(2), pp. 37-70.

〈미간행자료〉

- 北朝鮮華僑聯合總會. 1949, *學校正規化教育部表1: 咸鏡南道, 平安北道, 黃海道*.
- 北朝鮮華僑聯合總會教育部. 1949, *北朝鮮各道華僑小學校月終調查報告*.
- 手稿資料. 1948, *北朝鮮華僑中學校報告書*.
- 中国駐朝鮮大使館. 1958, “關於在朝鮮華僑情況資料”, *中國外交部檔案館106-01130-03*.
- 中華民國外交部亞東司. 1945, “為請核辦偽政府駐朝鮮領館人員見復由”, *韓國僑務案, 臺灣國史館, 單位區號05000-0670-4460*.
- 平安南道華僑聯合會. 1949, *平安南道華僑聯合會: 教育部總填寫表*.
- 平安北道華僑聯合會. 1949. *平北道華僑聯合會報告書*.
- 平壤特別市華僑聯合會. 1949. *平壤特別市華僑聯合會教育填寫表, 西平壤學校*.
- 咸鏡南道華僑聯合會. 1949, *咸鏡南道華聯會工作總結*.
- 咸鏡北道華僑聯合會. 1949, *咸北道教育工作總結*.
- 汪政權駐鎮南浦辦事處. 1944, “僑民教育”, 汪政權大使館檔案, *東洋文庫2-2744-37*.
- 朝鮮總督府. 1943,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朝鮮總督府. 1944, *人口調查結果報告, 其ノ一*.

〈신문자료〉

- “劉馭萬談朝鮮僑情”，*新聞報*，2면，1948.5.19.
- “華僑中學校掀起創模競賽”，*民主華僑*，4면，1948.11.29.
- “華僑中學成立一周年盛大舉行紀念會”，*民主華僑*，3면，1948.12.7.
- “平壤大駝嶺中朝兒童聯歡大會盛況”，*民主華僑*，4면，1948.12.7.
- “居住在北半部中國人之教育對策，內閣決定由國家保障”，*民主華僑*，1면，
1949.3.21.
- “丁委員長的總結要點”，*民主華僑*，2면，1949.3.21.
- “各地教育消息”，*民主華僑*，4면，1949.5.16.
- “教育消息”，*民主華僑*，4면，1949.7.18.
- “對華僑教育小感片斷”，*民主華僑*，3면，1949.8.15.
- “二年以來的平壤中國人中學校”，*民主華僑*，4면，1949.12.3.
- “簡訊”，*民主華僑*，3면，1950.4.26.
- “平壤中國人中學校招生簡章”，*民主華僑*，2면，1950.7.15.
- 民主華僑*. 1949.4-12. \